

2/4(금) 스가랴 묵상 7

스가랴 4:6-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묵상했던 5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6-1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환상에서 스룹바벨에게만 말씀하신 이유는 4번째 환상에서 이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자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된 시점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6절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은 스룹바벨의 힘이나 유다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리마인드 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훼방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여러 번 멈추게 되고 갈팡질팡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지만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다(7절상,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스룹바벨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말하거나 혹은 성전 재건을 회의적으로 보는 내부의 분열로 생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그의 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도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과도 같았습니다(수 1:6-7,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당시 여호수아는 더이상 그를 지도해주거나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그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단지 성전 건축의 완공 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계시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평지가 되리라’는 예언입니다(7절).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는 것은 이사야 40:4절의 말씀과 예언적 유사성이 있습니다(사 40:4,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산’ 그리고 ‘골짜기와 언덕’이 제거된다는 것은 하나님나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을 제거하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머릿돌입니다(7절). 이는 이전에 이미 해석한 적이 있는데 성전의 기초이자 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입니다(10절).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주님의 보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마저도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말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민 1:30-31, 33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기에 그 분이 없다 하며 또 그 분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또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불신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격려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 땅을 위한 기도:** 미국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미국 교회들과 한인 이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역부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